

27m 3초의 예술 인간새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선대 하이다이빙 경기장
인간새 묘기에 관중들 환호
여 오늘·남 내일 3·4차 시기

‘수영의 꽃’으로 통하는 하이다이빙 경기장 22일 막을 올렸다. <관건기사 2·3·22면> 하이다이빙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강심장들이 아파트 10층 높이(남 27m, 여 20m)에서 뛰어내리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축구장에 마련된 하이다이빙 경기장 주변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의 연기를 지켜보려는 관중으로 붐볐다.

낮 12시 30분께 출전 선수 소개를 시작으로 여자부 경기가 진행됐다. 첫 주자로 나선 페르난데스 로페스(스페인)는 경기가 진행되는 20m 플랫폼에 올라가기 위해 철제 임시 구조로 만들어진 100개의 계단을 올랐다. 중간쯤 올라선 뒤 돌연 발을 멈춘 로페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긴장을 풀었다.

세번째 주자로 나선 브래들리 제네비에브(미국)도 보기만해도 아찔한 20m 플랫폼 위에서 입수 전 춤을 쳤다. 공포심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넘쳐 흘렀다.

관중은 첫 선수의 연기 도중에 환호성을 질렀다. 관람 규정 위반이었다. 하이다이빙은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빙대에 선 순간에는 관중의 ‘정숙’이 필요하다. 스크린과 장내 아나운서가 수

차례 “정숙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관중은 연기가 끝난 뒤 박수를 보냈다.

이날 여자부 경기에서는 지난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아드리아나 히메네스(멕시코)가 1차 시기(54.60점)에서는 6위에 머물렀지만 2차 시기에서 고난도 기술을 성공시켜 1·2차 합계 148.20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하이다이빙의 간판 리아난 이프랜드(호주)는 132.95점(5위)으로 부진했다.

이어 오후 2시께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펼쳐진 남자부 1·2차 경기에도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1·2차 시기에서는 미국의 스티브 로뷰가 최고 ‘인간 새’로 우뚝섰다. 스티브 로뷰는 이날 2차 시기에서 5바퀴를 도는 고난도 연기를 펼쳐 1위(218.40점)에 올랐다. 로뷰가 앞으로 5바퀴를 도는 아르코바틱한 묘기를 선보이자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2016·2017 FINA 하이다이빙월드컵과 2013·201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석권한 하이다이빙의 대표주자인 게리 헛트는 1차 71.40점, 2차 117.60점 등 합계 189.00점으로 4위에 그쳤다. 2연패를 노리는 스티브 로뷰는 예선 성적을 결선 점수에 합산하는 하이다이빙 특성상 24일 펼쳐지는 결승(3·4시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1·2차 시기에서 부진한 게리 헛트의 부담감은 커지게 됐다.

한편, 두 세션으로 나뉘어 한 세션에 두번씩 다이빙하는 하이다이빙은 여자는 23일 오전 12시 15분, 남자는 다음날인 24일 오전 12시 3·4차 시기가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선수들은 모두 4차례 다이빙을 수행하며 차수마다 7명의 심판이 점수를 부여한다. 이 때 최하점 2개와 최고점 2개를 뺀 중간치인 3개 점수에 선수가 경기전 선택한 난도를 곱해 점수를 낸다. 1·2·3·4차 시기 합계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김정숙 여사 응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찾아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 출전한 김서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설립 8월 이후에나 가능

일부 투자자 의사결정 지연
광주시 ‘7월 설립’ 불발될 듯

광주 빛그린산단에 자동차공장을 짓고 운영할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회사) 설립이 광주시가 애초 공언했던 7월에서 한 달 가량 늦춰진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작법인에 투자할 주요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지연돼 법인 설립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의 첫 적용모델인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설립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주주간 협약 체결, 출자금 납입, 발기인 총회, 법인설립 등기로 연결되는 일련의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자자로 나설 기업이나 기관이 합작법인에 투자하겠다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자의 경우 배임 논란 등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투자 행위를 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광주시는 법인 설립 절차 가운데 첫 관문이자 특히 중요한 주주 간 협약 체결 일자가 아직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주주간 협약 과정에서 저마다 인수할 주식 규모를 확정 짓고, 인수 주식 만큼 출자금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정관을 확정하고 법인 공식 명칭, 대표이사를 결정하는 것도 주주 간 협약 과정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투자 의향 기업(또는 기관)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진 게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조정되거나 일부 투자자 변경으로 법인 설

립 절차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 간 투자금액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등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당초 밝혔던 7월 중 합작법인 설립’ 일정에서 8월로 다소 늦춰지는 것은 사실이나,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8월 초 혹은 광주세계수영대회 폐막 이후(8월 18일)에는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후 11월 완성차 공장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이라는 목표에는 흔들림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합작법인 설립과 자동차공장 건립 자본금으로 5754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광주시와 현대차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자기자본금 23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타인자본금 3454억원은 공장 건축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 차입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하늘높이 솟아 구름 사이로

22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 경기장에서 열린 하이다이빙 여자 20M 경기에서 스페인의 셀리나 페르난데스가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